



JCI인증, 세계를 향한 힘찬 날개 짓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기대

고려대 안산병원 최재현 병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을 2~3년내 받기로 선언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지난 8월 안암병원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새롭게 개정된 기준으로 인증을 마쳐 고려대의료원 산하 병원의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안산병원 역시 JCI 인증을 통해 다시 한 번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예정이다. 국내를 뛰어넘어 국제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는 첫 걸음인 JCI인증은 병원의 명성과 더불어 환자의 안전을 위한 선진국형 의료기관인증제도로, 안산병원이 JCI인증을 받을 경우 국내에서는 서울 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국제의료기관이 탄생할 예정이다.

1,200여개의 엄격한 기준 항목 전 세계 35개국, 209개 병원 인증

JCI 인증은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서 전 세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엄격한 국제 표준 의료 서비스심사를 거친 의료기관에 발급하는 인증제도이다. 의료기관은 JCI 인증을 위해 환자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치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기까지 전 과정을 약 1,200여개 항목에 걸쳐 평가단의 세

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자의 안전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JCI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존스홉킨스병원, 메이요클리닉,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등 미국 내 95%정도의 병원이 인증을 받았고 태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 35개국 209개의 병원이 인증을 받았다. 만약 안산병원이 JCI 인증을 받는다면 세계적 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제공

지난 2007년, 우리나라에서 첫 JCI 인증 의료기관이 탄생한 후 국내에선 'JCI인증 = 해외환자유치' 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해외환자유치를 위해서 JCI 인증이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미국 시사주간지인 <U.S 뉴스 & 월드리포트>는 2008년 5월 판을 통해 미국인들의 의료관광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면서 해외의료기관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해당 의료기관의 JCI 인증 여부를 지적했다.



▶ 안산병원이 JCI인증을 통해 미국, 중국 등으로부터 해외환자유치 뿐만아니라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에게도 세계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다른 나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JCI 인증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고 <U.S 뉴스 & 월드리포트>는 덧붙였다.

하지만 JCI 인증은 외국인 환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국내 환자들도 세계 수준의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JCI 인증 전 수술실에선 환자의 성명만 확인하고 마취에 들어갔다. 하지만 JCI 인증기준 하에선 마취 전 마취과 의사와 수술 집도의 그리고 환자 본인이 성명, 생년월일과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의사들은 이를 다시 확인하는 서명을 해야 한다. 얼핏 번거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만에 하나 있을 환자 혹은 수술부위 바뀔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한, 모든 환자 진찰시 마다 손소독제를 이용한 감염 차단과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담당의사가 수시로 직접 기록하는 등 JCI 인증 기준 아래에선 의료진 중심 진료에서 보다 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진다.

세계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세계를 향한 도약의 발판

안산병원의 JCI 인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도약에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리적으로 안산병원은 인천국제공항, 송도국제화도시 그리고 안산시 공단지역 등 외국인 환자들의 접근이 편리하다. 특히나 인천대교의 개통을 통해 인천공항과 경기도 서남부권이 보다 가까워짐에 따라 그 접근성은 더 편리해질 듯 하다. 이를 통해 멀리는 미국 가까이 중국으로부터의 환자 유치를 통해 고려대의료원의 세계적 의료기관으로서의 도약에 안산병원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목말라 있는 안산, 시흥, 반월, 평촌 등 경기 서남권 지역 주민들과 멀리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한 충청도, 전라도 지역 주민들의 갈증을 해결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



▶ 고려대안암병원은 지난 8월 JCI인증을 통해 세계적으로 안전한 병원임을 인정받았다.

최재현 병원장 ‘시민행복상’ 수상 연구성과, 세계 100대 의학자 선정 등 공로 인정



최재현 고려대안산병원장(사진 왼쪽)이 안산시로부터 ‘시민행복상’을 수상했다.

안산시는 11월 10일 최재현 병원장을 안산시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로 ‘시민행복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최 병원장이

지속적인 임상연구를 통해 의학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국내 의료수준을 한 단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영국 캠브리지 국제 인명센터에서 선정하는 ‘세계 100대 의학자’로 선정 되는 등 대한민국과 안산시의 명예를 드높여 시민이 행복한 안산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 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주원 시장(사진 오른쪽)은 수여식에서 “앞으로도 안산시민들 건강지킴이로서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최재현 병원장도 “최선을 다해 고려대 안산병원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으로 하나되는 고려대의료원’ 의무부총장배 축구대회 안산병원 우승



의료원은 11월 7일 안산호수공원 축구장에서 제 15회 의무부총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손창성 의료원장, 김창덕

안암병원장, 김우경 구로병원장, 최재현 안산병원장 등 의료원 주요 보직자들과 고려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대회는 의료원, 안암, 구로, 안산병원 소속 축구동호회 4팀이 리그를 통해 우승팀을 가렸다. 4팀이 치열하게 경쟁한 가운데 우승팀은 극적으로 가려졌다. 마지막 경기를 남기고 2위를 달리던 안산병원(2승 1무)은 무승부만 해도 우승인 안암병원(2승 1패)을 1대0으로 제압하고 극적으로 우승기를 들어 올렸다. 

고려대 안산병원 ‘1등급’ 확인 심평원, ‘뇌졸중 치료 잘하는 병원’ 2회 연속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추구 평가 결과’를 통해 고려대 안산병원을 급성기 뇌졸중 치료를 잘하는 ‘1등급 병원’으로 선정했다. 안산병원은 2007년에 이어 2회 연속 뇌졸중 치료 잘하는 병원 1등급에 선정되었고 경기 서남권(안산, 시흥, 화성)에선 유일하게 선정 됐다.

이번 평가는 단일 질환으로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뇌졸중 등 뇌혈관계 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파악하고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평가방법은

뇌졸중 관련 전문의의 병원 상근여부인 구조 부분과 의료서비스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는가의 과정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이 두 분야에서 모두 최상의 등급을 받아 1등급에 선정 된 것이다.

이번 뇌졸중 치료 1등급 병원 선정을 통해 고려대 안산병원의 꾸준한 진료의 질 향상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또한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손기술, 세계가 배운다” 2009 오목가슴 워크숍 성료 미국, 중국, 사우디 등 세계 각국 전문의 참석



안산병원 오목가슴클리닉 박형주 교수팀은 10월 29일과 30일 안산병원 수술실에서 2009 Pectus live surgery workshop’을 개최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멀리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계 각국에서 참석한 오목가슴수술 전문의들은 박형주 교수의 집도로 진행된 다양한 형태의 수술을 직접 참관하며 오목가슴수술에 관한 최신 지견을 배웠다. 특히, 박형주 교수가 직접 고안한 수술도구가 의료진의 세심한 손을 통해 환자의 신체구조와 거의 흡사하게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모습에 감탄과 관심을 감추지 못했다. 

안산병원 혈관센터, 현판식가지고 본격 출발 임상과 전문 협진 시스템 구축, 새로운 센터 선보일 터



안산병원 혈관센터가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11월 19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최재현 병원장을 비롯해 혈관센터의 교수진들이 참석한 이번 현판식에서는 혈관센터의 개소를 축하하고 앞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고품격 진료를 펼치기 위한 각오를 다져 큰 호응을 얻었다.

안산병원 혈관센터는 뇌졸중을 비롯한 대

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정맥질환 및 이와 관련된 신경학적 문제들의 신속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 환자의 재활에 이르기까지 혈관질환과 관련된 모든 질병들을 통합하여 치료하는 진보된 형태의 진료 센터이다. 현재 흉부외과를 비롯해 영상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혈관외과, 정형외과 등 각 분야의 전문 의료진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선진국형 의료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재현 병원장은 “21세기의 의료는 전문 의료진의 협진을 통한 시스템 진료”라고 강조하고, “이는 환자 중심의 치료를 통해 궁극적인 의료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혈관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09 QI 경진대회 성황리에 마쳐 꾸준한 QI활동 통해 의료 질 향상 노력



안산병원은 11월 24일 본관 2층 대강당에서 2009 Q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지속적인 QI활동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박정율 부원장, 이낙우 QI 위원장 등 안산병원 주요 보직자들과 10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박정율 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1년간 안산병원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여 주는데 힘써준 교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보다 발전 할 수 있는 안산병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망 한다”고 말했다.

2009년 QI경진대회에는 총 28개 팀이 참여해 1차 심사를 거쳐 영상의학과 등 9개 팀이 경진대회 당일 구연발표를 가졌다. 또, 최근 안암병원이 인증을 받아 관심이 높아진 JCI(국제의료기관평가)인증평가의 개념과 준비과정에 대해 안암병원 박건우 교수가 특강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시상식에 선 마취통증의학과가 대상을 수상했고, 정형외과가 포스터대상을 수상했다. 

■ 수상내역

대상(1): 마취통증의학과, 최우수상(1): 의료정보팀, 우수상(2): 수술실, 영양팀, 장려상(5): 내시경실, 감염관리실&내,외과중환자실, 종합진강검진센터, 영상의학과, 63병동
포스터대상(1): 정형외과, 포스터상(4): 간호부외래, 신생아중환자실, 진단검사의학과, 간호부 물품절감팀

어르신들의 건강, 안산병원이 지킵니다. 세종캠퍼스에서 의료봉사활동 큰 호응으로 마쳐



안산병원은 지난 10월 31일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2006년부터 4번째 방문이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은 연기군과 고려대 세종캠퍼스 그리고 안산병원이 공동으로 의료소외계층을 위해 마련한 행사다. 올해는 연기군 전의면, 전동면 주민을 주 대상으로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소화기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전문 의료진의 진료뿐만 아니라 평소 접하기 힘든 초음파, 혈액, 심전도검사 등

최신 의료장비를 통한 진단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된 의료봉사활동에선 총 2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진료소를 방문해 큰 호응을 얻었다. 주민들은 “몇 해째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너무나 고마운 일”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고려대 세종캠퍼스 이윤석 부총장은 “주민들께 안산병원과 함께 이런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은 학교와 의료기관, 주민이 상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캠퍼스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안산병원 박정율 부원장은 “오늘 전문 의료진이 이곳에 봉사활동을 온 만큼 충분히 진료를 보시고 앞으로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 안산병원,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동참



안산병원이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만들기’에 나섰다.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에 동참한 것이다.

안산병원은 11월 18일 본관 1층 로비에서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신자)과 함께 노란리본달기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11월 19일 2009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해 안산병원 교직원들과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홍보와 신고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박정율 부원장, 김정숙 간호실장(사진) 등 안산병원 교직원들은 아동의 안전을 의미하는 노란리본벤티를 가슴에 달고 아동학대예방 동참과 아동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짐했다. 박정율 부원장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의료진들의 역할이 크다”며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신자 관장도 “안산지역에는 심각한 학대를 겪는 어린이들이 많다”며 “그 만큼 지역 유일의 대학병원인 안산병원 의료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9 친절리더 활동 보고회 가져



안산병원의 친절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후된 시설 등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2009 친절리더 활동 보고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안산병원은 11월 17일 본관 2층 대강당에서 2009 친절리더 활동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재현 병원장, 이홍식 기획실장(친절리더위원장), 이종길 경영관리실장 등 안산병원 주요 보직자들과 이경진 친절리더 팀장 등 교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최재현 병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친절은 자신의 실력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바쁜 업무 중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모든

친절리더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홍식 위원장도 “1년 동안 많은 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보고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경진 팀장이 2009년 친절리더활동 보고 및 중점 과제로 진행된 안산병원 방문 택시기사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8일과 1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사에서 안산병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고 했다. 교직원, 주차, 안전요원 등의 서비스는 모두 만족도가 높았지만 표지판 이용 편이성, 진료대기실이용 등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행정, 의료기사, 외래간호, 병동간호팀 대표가 병원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보고회에 앞서 있는 친절 우수부서 포상에선 63병동, 중앙공급실, 진단검사의학과가 대상을 받고 최우수상에 2개, 우수상에 6개부서가 선정됐다. 

‘십시일권(十匙一卷), 마음을 나눴요’ ‘사랑의 책’ 기증식 가져



안산병원은 11월 4일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을 통해 모인 1,404권의 책을 안산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했다.

안산병원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문화생활 여건이 부족한 사회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9월 7일부터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을 펼쳤다. 약 3주간 진행된 책 나누기 운동에서 많은 교직원들의 참여로 어린이 동화책에서부터 최신 소설책까지 1,404권의 책이 모였다. 이렇게 모인 책들은 지역 아동센터협의회 안산지부와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 각각 전달됐다.

박정율 부원장은 기증식에서 “이번 운동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나눔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혜선 사회복지사(본오종합사회복지관)도 “책을 빌려가는 지역 주민들이 안산병원 교직원들의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성우 교수, 2009국제 히포크라테스 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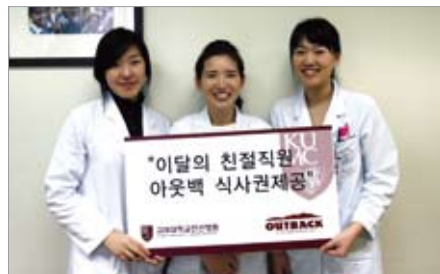
international Hippocrates Award for Medical

안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성우 교수가 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 Cambridge, England)에서 선정하는 2009년 국제 히포크라테스 상(The

Achievement) 수상자로 선정되어 2010년 IBC 인명사전에 등재됐다.

이성우 교수는 지난 한 해 동안 심정지 환자를 위한 심폐소생술 연구를 국제 학술지 ‘Lancet’ 과 ‘Resuscitation’에 발표하고 응급실에서 비침습적 환자 감시에 관한 연구 결과를 ‘Journal of Trauma’, ‘Emergency Medicine Journal’ 등에 발표하는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거둔바 있다. 

친절한 안산병원, 내가 만들어간다. 10월의 모범직원 선정해 시상



안산병원은 10월 29일 ‘10월의 모범직원’을 선정하고 그동안의 노력을 치하했다.

10월의 모범직원에는 우수한 주 단위 의무기록 마감율을 보여준 이비인후과 이성호 전공의, 예민한 소아청소년 환자를 내 가족처럼 보살핀 63병동 김선미 책임간호사 그리고 항상 밝은 미소와 친절한 설명으로 환자들을 맞은 ‘설명달인’ 진단검사의학과 김정례 주임임상병리사가 선정됐다. 모범직원 모두에게는 아웃백 중앙점이 제공하는 식사권이 제공됐다. 

최재현 박사, 안산병원 제13대병원장으로 취임 교직원의 믿음과 화합속에 안산병원의 변화된 모습 이끌 것



고려대 안산병원 제 13대 병원장에 최재현 박사(사진)가 취임, 지난 2년에 이어 2011년 9월까지 다시 한 번 안산병원을 이끌 예정이다. 13대 병원장에 연임한 최재현 병원장은 그 동안 첨단의료기기도입, 본관 리모델링, 새로운 의료진 영입 등을 통해 안산병원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왔으며, 안산병원 개원 이래 진료성과와 경영 성과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줘, 변화와 도약의 가능성을 실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재현 병원장은 제 13대 병원장 취임사에서 “변화와 도전을 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펼침으로써, 고려대 안산병원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공고히 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최근 의료계의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인증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과 함

께 인증을 통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특화된 의료 영역에서의 국제 표준화를 달성함으로써 새로운 이윤창출의 블루오션을 개척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JCI인증과 더불어 연구동, 본관 증축과 ‘참살이병원’의 신축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참살이병원’은 환자에게 진정한 의료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의료의 의미를 진일보 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 13대 병원장으로 취임한 최재현 병원장은 “이러한 계획의 모든 근원은 단결되고 화합된 병원 교직원들의 노력과 신뢰가 밑바탕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2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모든 교직원들이 믿고 따라준다면 분명 고려대 안산병원의 새로운 미래를 가져올 토대가 만들어 질 것”이라며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국민 건강지킴이에 앞장선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주는 우리가족주치의



영화 ‘작은아씨들’에서 셋째 딸 베스가 성홍열에 걸려 고열과 진신 발진으로 고생하는데, 가족의 주치의가 왕진가방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정성스럽게 진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영화에서 보는 봐와 같이 가정의학과 의사는 가장 먼저 환자와 만나서 일차 진료를 담당하는 가족주치의 역할을 하는 의사이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 주변에서 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으로 복용할 약이 필요한 할아버지, 할머니, 기침하는 꼬마들, 감기에 걸려 목이 아픈 아저씨들 등 가벼운 질병을 먼저 부담 없이 진료 받기 위해 찾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의학과이다.

우리가족주치의 그리고 안내자 역할

고려대 안산병원 가정의학과는 1998년 9월, 안산병원 증축과 함께 개설되었다. 개설 당시 안산병원에 부임한 윤도경 교수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가정의학과는 개설 이래로 환자 개인과 가족들의 증상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 치료하는 우리가족주치의 역할을 해왔다. 동시에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환자가 필요한 임상과 임상의를 판단하는 안내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들어 일반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병을 미리 알고 예방하고자 하는 종합건강검진이 늘어났다. 이에 발맞추어 가정의학과는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상담을 맡으며 건강 검진을 통한 질병의 예방, 조기 발견, 치료에 힘쓰고 있다.

전문클리닉으로 승부한다

현재 안산병원 가정의학과는 안근영, 성한나 교수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금연, 비만, 여행자건강 클리닉을 운영 중이

다. 안근영 교수는 프랑스 파리 5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프랑스와 한국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두 취득하였으며, 영어, 프랑스어에 능숙해 외국인 진료도 겸하고 있다. 성한나 교수는 영남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고려대 구로병원 전임의를 거쳐 현재 안산병원에서 학생, 전공의 교육을 하면서 진료에 힘쓰고 있다.

조기검진을 통해 평생 건강관리

“만성질환으로 약이 필요한 할아버지, 할머니, 기침하는 꼬마, 감기에 걸린 아저씨들 등 가벼운 질병을 먼저 진료받기 위해 찾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의학과이다. 작은 병일수록 완치를 위해 진료를 펼치고 주치의로서 최선을 다한다.”

의료는 치료의학, 예방의학의 시대를 거쳐 건강증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건강증진이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 건강 진단을 통하여 중요한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조기 발견하여 이에 대한 치료, 예방 및 행동수정을 통해 평생 동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또, 건강할 때 더욱 건강해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식하여 최상의 건강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건강증진클리닉에서는 연령별, 성별, 위험 요인별로 건강검진의 항목을 결정하고, 금연, 절주, 영양 및 운동 평가와 상담,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비만치료, 만성피로, 스트레스관리 등을 통한 평생 건강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건강을 위한 금연 클리닉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금연 클리닉에서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관련된 합병증 발생의 유무에 대한 제반 검사를 통하여 환자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성공적인 금연을 위한 구체적 치료방법과 함께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연 상담 및 처방을 통하여 흡연자의 건강관리를 하며, 약물요법과 행동요법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금연율을 향상시키고 있다.

만병의 근원, 비만을 잡는다

비만을 치료하는 것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우선은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위해 올바른 체중조절방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시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일시적인 체중감소만을 유발하

며 오히려 요요현상이 유도되어 체중의 급격한 증가가 발생한다.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비만클리닉에서는 환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행동 및 약물요법을 통한 체중 감량으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여행자 건강관리 클리닉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여행자 건강관리 클리닉에서는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여행지에 대한 기후 및 고도 순응, 환경적인 위험요인, 외상예방에 대한 교육, 임산부에 대한 특수진료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말라리아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 예방 가능한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 항공여행에 따른 건강문제 예방, 만성질환(당뇨병 및 심장질환) 등의 관리에 관해 상담 및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중심의 One-stop서비스, 안산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현재 우리는 의학기술의 현저한 발전으로 어떤 질병이든 조기발견하면 완치 될 수 있는 최첨단 의학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신체 어느 부위엔가 이상증세가 나타나야만 병원을 찾아, 완치되기까지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 큰 고통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건강검진이 각광을 받고 있다.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환자 중심의 센터

고려대 안산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는 2002년 1월 17일 개설 이래 이홍식 소장을 비롯 5명의 교수들과 11명의 직원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종합건강검진센터는 진료 및 각종검사, 진료지원, 행정지원 인력 등 종합건강검진만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친절, 신속한 검사 및 판정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한 동선을 별관 1층에 공간에 효과적으로 배치해 안락한 편의시설과 부대서비스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편의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종합건강검진센터는 나날이 다양해지는 의료소비자의 욕구와 서비스 제고를 위해 획일적인 건강검진이 아닌 세분화되고 특화된 영역별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종합건강진진 외에도 중장년층을 위한 뇌졸중종합건강진진, 예비부부를 위한 예비부부건강진진, 청소년의 학습능력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건강진진, 여성만을 위한 폐경기여성건강진진, 그리고 가족력과 연령에서 의심되는 특정질환을 집중적으로 진단해내는 정밀선택건강검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 자신과 센터의 발전을 위한 ‘독서토론’

매일 뻘뻘한 건강검진일정에도 종합건강검진센터 직원들의 표정에 정성과 열정이 가득했다. 보통의 병원은 건강에 이상신호가 있어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종합건강검진센터는 자신과 건강에 남보다 더욱 관심이 있는 고객들이 찾는 곳이라는 특별함이 있기에 더욱이 그러할 것이다. 경동맥 초음파와 위장조영촬영을 담당하는 김석희 방사선사는 “경동맥초음파를 받던 환자에게서 우연히 갑상선에 종양을 발견해 조기치료를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볼 때

는 새삼 보람을 느낀다.” 며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보였다. 이춘희 간호사는 이러한 힘의 원천이 매달 개최하는 독서토론에 있다고 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독서토론은 매달 선정된 도서를 읽고 각자 느낀 점을 토론 한 후 검진센터 업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벌써 7회를 맞이했다.

모두가 함께해 결손력 증진

‘매일 같은 일상으로 젖어 있을 즈음, 직원 개개인과 종합건강검진센터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는 취지로 시작된 독서토론은 ‘진화해 가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의 지적역량을 향상시킴으로 언제, 어디서든 건강검진센터를 “이기는 습관” 을 가진 효율적인 조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 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처음 시작은 어색했으나 이홍식 소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참여율도 높아지면서 현재는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하는 등 직원간의 화합의 시간을 겸비한 현재의 독서토론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건강검진센터 직원들은 조직구성원에 대한 상호 이해와 결속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자부심이 대단했다.

이렇듯 안산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 발전을 꿈꾸는 직원들의 지극한 노력으로 지역 최고의 종합건강검진센터라는 위상에 걸맞은 모습을 완성하고 나아가서는 국내 최고의 종합건강검진센터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 포부를 밝혔다. 

글 | 원내기자 고재철(산업의학과)

센터! 센터! 센터! 오케이! 쌈싸먹어! 스타크래프트 동호회 “스타사랑”

스타크래프트(StarCraft)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한 전략시뮬레이션게임이다. 1998년 4월 1일 북미 지역에, 같은 해 4월 9일에는 대한민국에 발매되었다. 게임의 배경은 미래의 우주로, 지구로부터 쫓겨난 인류의 자손인 테란(Terran)과 집단 의식을 가진 절지동물 저그(Zerg), 고도로 발달한 외계 종족인 프로토스(Protoss)사이의 전쟁을 다루고 있다.

스타크래프트와 그 확장 팩(부르드워)은 1998년 세계적으로 150만 장을 판매하며 그 해에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이 되었고, 2007년을 기해 블리자드사는 950만 장 이상이 팔렸다고 집계했다. 1998년 최고의 컴퓨터 전략 게임으로 오리진스 상을 받았고, 그 외에도 다수의 올해의 게임, 올해의 전략 게임, 올해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상을 받았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세계 판매량의 대략 절반인 450만 장이 팔렸고, 프로 선수와 팀이 생겨 경기가 방송에도 중계되는 등 높은 인기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안산병원에서는 2004년 7월 박영철 전 병원장을 초대 회장으로

으로 고대안산 스타사랑(<http://cafe.daum.net/kumcstar>) 동호회가 정식 출범하였다. 현재 30여명의 회원이 꾸준히 활동 중이며 월 3회 정도의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동호회원을 4개 팀으로 나누어 하반기 스타리그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우승팀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전달될 예정이다. 관리팀 윤성식 교직원은 “팀 간 경기는 7전 4선승제로 진행된다. 팀플레이어의 일원으로 나가 승리를 맞볼 땐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고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묘미를 말한다.

스타리그에 대한 회원들의 참석률은 80%를 육박하는데 이는 독특한 내부 규정덕분이다. 경기에 참석한 회원은 그날 무조건 2게임이상 출전해야 한다. 성적을 요구하는 대회이지만 항상 출전기회는 주어진다. 그렇다면 경기력 밸런스는 어떨까? 이 또한 규정상 실력이 부족한 회원에 대해서는 많은 특권이 제공되기 때문에 매번 긴장감 넘치는 게임이 진행된다. 재활의학과 공제진 교직원은 “여기선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다.” 며 “동호회 목적은 이기는 게임보다 즐기



는 게임. 나아가 즐거운 모임에 있다.” 며 관심 있는 교직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랐다.

임요환, 홍진호, 박정석, 마재윤등 수퍼스타를 배출해내며 발매 1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플레이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안산병원의 수퍼스타는 누가 될지 연말 토너먼트의 결과가 기다려진다.

글·사진 | 원내기자 김준엽(재활의학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고려반월병원’



전문인력과 최신 의료시설을 갖추어 환자중심의 의료문화를 실천하겠다는 설립취지로 약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6월 22일 개원한 고려반월병원(병원장 박윤후)을 찾았다.

고려반월병원은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위치한 신설 병원이다. 고려반월병원이 위치한 반월지역은 안산과 군포, 수원 의 접경 지역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급격히 인구가 늘

어났지만 주변 의료환경이 취약한 편 이었다. 이에 따라 고려 반월병원 개원은 의료혜택이 부족한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이를 반영 하 듯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았고 많은 환영과 호응이 뒤따랐다.

병원에 들어서자 진료과가 개설된 1층은 각 대기실이 부족 할 정도로 많은 외래환자가 눈에 보였고 병실의 대부분이 입원 환자로 차 있어 소문대로 지역 주민들의 호의적 반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려반월병원은 지상 7층, 지하 2층의 신축 건물에 90병상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외과 1, 2, 정형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등 진료과와 종합건강검진센터를 개설하였으며 전문클리닉으로 관절 클리닉, 인공관절 클리닉, 하지정맥류 클리닉, 대장항문 클리닉을 마련하여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응급실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또한,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과 더불어 처방전달시스템(OCS) 및 영상

정보시스템(PACS)등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진료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고려반월병원 박윤후 병원장은 “지역주민의 넘치는 사랑과 관심에 보람을 느끼고 더욱 더 큰 책임을 느낀다.” 며 많은 지역주민들의 호의적 관심에 감사를 전하고 “모든 환자분께 만족을 드리고 환자에게 사랑받는 병원, 지역사회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고 건강한 사회를 향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앞서는 병원을 만들어 가겠다” 며 높은 기대에 걸맞는 신뢰받는 의료 기관으로 보답하려는 다짐을 나타냈다. 



글·사진 | 원대기자 강봉구(산업의학과)

날씨만 추워지면 움찔움찔, 여성 요실금 남모르는 고민, 외출이 두려워진다.

겨울철은 다른 계절보다 인체의 땀 분비가 줄어들면서 소변량이 증가해 자주 화장실을 찾게 된다. 또한 실내외의 큰 기온차로 인해 배뇨증상의 이상에 따른 빈뇨, 야간뇨, 배뇨곤란 등의 증세가 악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평소 배뇨곤란이 있던 사람들에게 추운 날씨는 증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힘들고 자다가도 소변이 마려워 깨어나 소변을 본다면 과민성방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또,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한 느낌이 없다면 배뇨장애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년기 여성인구의 40%정도에서 이러한 증상을 호소할 정도로 많으며 특히 요실금 증세는 중년기 여성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이다.

중년여성의 고민 요실금

요실금은 대표적인 배뇨장애 증세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현상을 말한다. 다른 질환과 달리 우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지만 여성에게는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다. 보다 큰 것은 이에 따른 사회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심리적 위축이 문제이다. 요실금은 크게 복잡성요실금과 절박성요실금으로 크게 구분된다. 절박성요실금은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의 저장 기능문제로 발생하며 복잡성요실금은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의 저장기능은 정상이지만 요도의 잠금장치가 약해질 때 주로 발생한다. 복잡성요실금은 웃거나 재채기, 뽀뽀기 등과 같이 복압, 즉 복부부분에 압력이 갑자기 증가하면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새기도 한다. 주로 출산 시 태아의 머리에 의해 골반근육이 약해져서 발생한다. 여성요실금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잡성요실금과 절박성요실금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30%정도로 많으며 이를 혼합성 요실금이라 한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

요실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수치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성요실금을 전문으로 하는 비뇨기와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 요실금의 종류와 정도를 파악해 올바른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실금 치료에 있어서 정확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환자의 병력과 과거력을 청취하고, 요실금에 관한 설문지 작성 및 환자가 직접 배뇨일지(3일간 자신의 배뇨상태를 기록)를 작성하게 된다. 또 1회용 기저귀를 착용케 한 다음 약 1시간동안 복압 증가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운동 후 소변이 샌 양을 측정하여 요실금의 정도를 파악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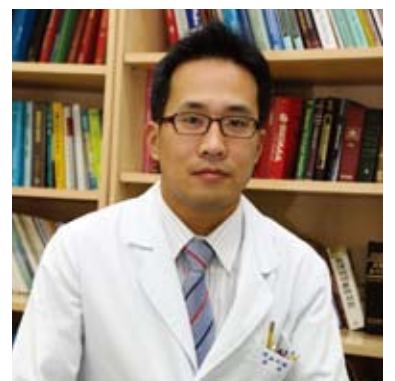
수치심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과민성 방광을 포함한 절박성요실금은 행동치료와 골반 근육 운동, 약물치료로 80% 이상 해결된다. 약물치료는 절박성요실금에 주로 사용되며 복잡성 요실금의 경우 증세가 가벼울 때 사용된다. 증세가 심할 경우 체외자기장 치료나 수술요법이 적당한데 체외자기장 치료법은 자극코일이 장착된 의자에 20분 동안 앉아 있으면 자기장이 골반에 인접한 신경을 자극해 골반근육을 수축시키는 치료법이다. 치료기간은 일반적으로 주 2회씩 6주간 실시하며 자기장이 늘어진 골반근육을 최대 20배까지 수축시키면서 근육을 강화시켜 치료한다.

수술은 주로 복잡성요실금 치료에 있어 약물이나 골반근육훈련 등으로도 증상의 호전이 없을 때 시행한다. 최근 수술법이 간편해져서 입원이 필요 없이 수술 후 당일 퇴원이 가능하며 수술시간도 10분 내외로 짧고 요실금도 95% 이상에서 완치가 된다. 혼합성요실금 치료에 있어서도 수술은 약물치료와 병행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되며 성공률도 80% 이상이다.

요실금을 막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스스로가 수치심을 떨치고 병원을 찾는 것이다. 간단한 문진만으로도 요실금의 추정 진단이 가능하며 치료 방침이 결정되면 모든 요실금 환자의 80% 이상에서 완치가 가능하다.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요실금이 생기는 것이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완치의 확신과 함께 병원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_ 고려대 안산병원 비뇨기와 김재현 교수

〈 건강강좌안내 〉

- 주제: 과민성방광 질환의 기초교육 및 치료법
- 일시: 2009년 12월 10일(목) 오후 3시부터 4시 30분
- 장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본관 2층 대강당
- 주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비뇨기와
- 강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비뇨기와 김재현 교수

이번 강좌는 배뇨장애에 관해 관심있으신 분 모두 참석이 가능하며, 강의와 질의응답 등을 통해 배뇨장애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랜역사와 깊은 자연 속에서의 사색 신라시대 고찰 법주사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를 다녀왔다.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첫 방문 때는 부모님과 친척들이 함께해 아무 생각없이 갔었는데,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보았던 모두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기억을 더듬어 법주사에 들어섰지만 역시나 '내가 여기를 정말 왔었나' 하는 의문이 들 만큼 새로웠다.

법주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 국립공원 관람은 무료지만 법주사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3,000원을 내야한다. 국립공원만을 보러 오는 사람에게는 얼핏 큰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법주사 정내에는 그 만큼 볼거리는 많기 때문에 입장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법주사 입구까지는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어 10~15분 정도 자연을 즐기며 걸을 수 있다. 산책로를 따라서 맑고 깨끗한 계곡물도 볼 수 있다. 법주사에 들어서서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높이 33미터의 청동미륵대불(아래사진)이 보인다. 동양 최대의 미륵불 입상이며, 신라시대에 만들어졌다. 2000년부터 순금 80kg을 들여 금박을 입히는 작업이 2002년에 끝나 청동색이 아닌 금색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거대한 불상은 그 크기와 더불어 금빛을 발하며 법주사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법주사 경내 목조건물들은 조선 후기에 대부분 복원시킨 것이다. 그중 팔상전(왼쪽사진)은 국보 제55호로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5층 목조탑이고 벽면에 부처의 일생을 8장면으로 구분하여 그린 팔상도가 있어 팔상전이라 이름이 붙혀졌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탑 중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며 하나뿐인 목조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법주사는 신라시대에 처음 법등을 밝혀 기나긴 세월의 발자취와 더불어 절 안팎의 수많은 유물과 유적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오늘날 이 땅의 미륵 신앙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법주사'는 꼭 한번 찾아야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글·사진 | 원내기자 박준우(시설팀)



‘밝게 웃어라, 시후야!’ 행복한 저녁식사로의 초대



힘찬 걸음으로 시후(9세, 여)가 사무실로 들어 왔다. 낯선 사람들 때문이었을까? 평소 친분이 있던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보고도 웃지를 않는다. 엄마 품에 안겨 사진을 찍고 뒤돌아가는 길, 입가에 살짝 미소를 머금고 손 흔드는 모습에서 감추고 있던 시후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 시후는 그렇게 사회에 다시 적응해 가고 있는 중이다.

시후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며 시후와 시후언니를 키우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시후 가족도 피해가지 않아 식당 운영난으로 생활비 충당도 어렵게 되었다. 그러던 중 시후가 뇌염과 뇌척수염으로 갑작스럽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시후 부모님에

게 시후 치료를 위한 경제적, 심리적 무게감은 시후와 시후언니에 대한 미안함을 더 키웠다. 다행히 시후의 치료를 위한 돈이 마련되었고 지난 9월부터 안산병원에서 본격적인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시후가 치료 받는 한 달 동안 시후 어머니는 시후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 시후 아버지도 혼자서 식당운업을 하면서도 힘든 내색 없이 매일 병원을 찾아 시후를 응원했다. 이런 가족의 따뜻한 힘이 시후가 힘든 재활과정에서도 빠르게 정상의 모습을 되찾아 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 왔다. 시후의 회복과 함께 시후 가족에게도 따뜻한 연말을 준비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 

찰칵찰칵 안산병원



